

무주반딧불축제 '대장정'

9월 3일까지 반딧불이 신비탐사·남대천 물 축제 등 펼쳐져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8.26.~9.3.)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이진식 김제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임창호 함양군수를 비롯해 재경, 재부산, 대전무주군민회 회원 등 출향인들과 무주군민, 그리고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개막선포와 함께 개막축하 창작극 '소리와 빛', 팝페라 & 세계어린이 합창단 공연, 자연과 사람의 하모니 미니콘서트, 무주군민 합창단과 함께하는 무용단 퍼포먼스와 반딧불이 효과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반딧불이와 함께 환경을 살리는 축제, 반딧불이의 사랑이 있어 감동이 넘치는 축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휴식이 되는 축제를 만들려고 정성을 다했다"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라는 자부심으로, 또 세계태권도성지라는 사명감으로 세계인들의 태권도 열기까지 이번 축제에 담은 만큼 다함께 즐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라"고 전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공연과 무주 태권



작년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락퍼커션을 선두로 무주군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들과 다문화가족, 출향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무주군 난타연합이 모두 함께 군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막식인 등나무운동장까지 행진을 하며 한바탕 흥을 돋운 반디날들이가 큰 호응을 얻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 식후 행사(빛의 향연)의 대미는 '반디 불꽃놀이'가 장식을 하며 9월 3일까지 펼쳐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무주반딧불축제(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는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지구환경과 인류애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남대천과 자남공원, 반딧불이 서식지 일원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반딧불축제 주제관과 무주아리랑, 남대천 물 축제와 8개국이 함께 하는 2017 글로벌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림민원 해결사 '산림의 119'

진안군, 숲가꾸기 패트롤팀 11월까지 운영

진안군은 주택과 농경지,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 의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명 '산림의 119'로 불리는 숲가꾸기 패트롤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진안군 숲가꾸기 패트롤팀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크레인, 굴삭기, 각종 산림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강풍과 집중호우 시 주택으로 도복 위험이 있는 수목, 농사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도로변 고사목 등의 제거를 주요 임무로 한다.

군은 현재까지 총 79개소 176주의 위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

명과 재산권 보호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위험목으로 잘려진 나무는 수집 후 적당한 크기로 토막 내어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땀감으로 지원하고 있다.

숲가꾸기 패트롤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환경산림과 경관녹지팀(063-430-2442, 2446)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숲가꾸기 패트롤팀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들에게 최상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5일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과 품목별 단체, 관계자 등 진안군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진안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로 진행된 간담회는 농업인단체의 농업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친환경 무립이농업의 주요성과와 지역특화품목 육성, 진안홍삼 품질향상과 미국 수출확대 등을 홍보하는 등 농업인단체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청정진안 친환경 농·축산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항로 군수는 간담회에서 "생산자 조직화와 농산물 기획 생산을 통해 연중 생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청정고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건강도시 100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무주, 글로벌 건강도시의 새 지평을 연다'를 주제로 한 건강도시 100인 국제 심포지엄이 27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했으며, IH연구원 김경곤 연구위원과 인천대학교 데이비드 앤더슨 교수,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김진희 연구원이 발제자로, 무주군의 이한승 의원과 IFZ 클라우드 드롤렛 박사, 자연지리연구원 정경연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계획'과 '농촌지역의 건강, 문화적 발전방향', '건강도시의 부

근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군 여건에 맞고, 무주군이 지향하며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기대가 크다"며 "이 자리가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도시를 건강과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로, 무주군은 지난 2008년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정회원 인증을 받고 ▲간접흡연 예방사업, ▲안 예방, ▲고혈압 당뇨 로우, 건강 하이, ▲생태 숲 조성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도 가입했으며 호주 카야마시를 비롯한 로잔시와도 건강도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이어오는 등 건강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제 관광박람회' 서 장수 관광 알려

군, 주요 관광 명소 ·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집중 홍보... '전북방문의 해' 소개

장수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장수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2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40,000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규모 관광박람회로, 국내외 문화, 의료, 뷰티 등 관광관련 콘텐츠들을 한자리에 모은 국제 관광 네트워킹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 장수군은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승미번지 장수'의 주요 관광 명소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11회 한우랑 사과

랑 축제'를 집중 홍보해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올해 초 출시된 한 장의 카드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수군의 관광지원과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군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전북투어패스 발매와 '2017 전북방문의 해' 홍보를 통해 전북도의 토탈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놀이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주1회, 2시간씩) 진행한다.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집단놀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서와 양보, 배려심을 배우고 실천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의의를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개관

다목적공연장 · 폐백실 · 동아리방 등 갖춰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테이프 컷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반딧불축제 시작에 맞춰 개관식을 갖게 돼 기쁘고 무엇보다도 인근의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공예촌까지 어우러져 이 일대가 우리 군 전통문화 예술 1번지가 될 거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이제 작은 발표회부터 대규모 공연은 물론, 주민들의 결혼식까지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만큼 제대로 활용이 돼서 지역에 활기가 돌고, 군민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를 최북미에 자리를 잡은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1층 1,012.21㎡ 규모로 다목적공연장(194석)을 포함한 출연자 대기실과 폐백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장과 지역주민들의 결혼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 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신타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겨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